

#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Urban Public Art Strategies to Enhance City Competitiveness

**박재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학예연구사,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전공 박사

**Park, Jae Eu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sign Policy Bureau, Curatorial Researcher

※ 본 논문은 연구자의 2025년 제출된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이론적 고찰

- 2.1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
- 2.1. 공공미술과 어바니즘(Urbanism)
- 2.2.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

## 3.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요인분석과 영향력 평가

- 3.1. 요소 도출
- 3.2.AHP 기반 전략요소 우선순위 분석
- 3.3. SEM을 통한 영향력 평가
- 3.4. 도시공공미술 개념화

## 4. 도시공공미술 전략 도출

- 4.1. 도시공공미술 실증분석
- 4.2 도시공공미술 전략구상
- 4.3 결과검증(FGI) 및 전략도출
- 4.4 도시공공미술 전략 적용가능성

## 5 결 론

- 5.1 연구의 의의
- 5.2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
- 5.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국문초록

공공미술(Public Art)은 도시공간에서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며 진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공공미술은 특정 공간의 장식적 요소이거나 소규모 공동체 활동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내 설치 미술작품·조형물이 4,500여 점에 이르는 포화 상태와 성과주의적 단발성 사업 중심의 정책 구조는 미래지향적 전략체계로의 전환을 시급한 과제로 부상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미술의 긍정적 영향력이 현대도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하고, 장식 차원을 넘은 확장적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각 도시의 문화 매력과 경쟁력 증진 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도시경쟁력 평가지표가 경제적 요소 중심에서 삶의 질·문화적 매력·시민참여 등 정성적 가치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배경으로, 공공미술과 어바니즘(Urbanism)의 전략적 결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공공미술·도시계획 이론·도시 문화경쟁력 개념의 이론적 관계성을 고찰하였으며, 제3장에서 계층분석법(AHP)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구조방정식 모델(SEM)로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

개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파리·코펜하겐·뉴욕·싱가포르·멜버른·서울 6개 도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공미술 효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한국 적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공공미술 적용을 어바니즘과 결합하여 '도시공공미술'이라는 구체적 개념으로 치환함으로써 도시 적용 태도의 전환을 시도한 점, 둘째, 도시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여 정책 전환을 위한 수치적 근거를 마련한 점, 셋째, 기획 단계에서부터 도시공간 변화와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도시공공미술의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도출한 점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공공미술 정책이 단순한 환경미화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공공미술, 도시공공미술, 도시경쟁력, 어바니즘, 도시공공미술 전략

## Abstract

Public art has expanded cultural access and social discourse in cities, yet in Korea it remains limited to decorative roles or small-scale community projects. In Seoul, the saturation of around 4,500 artworks and the prevalence of short-term, performance-driven initiatives underscore the need for strategic trans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public art functions in contemporary cities and proposes an expanded framework linking it to urban competitiveness. As evaluation criteria shift toward quality of life, cultural attractiveness, and civic participation, the study explores the integration of public art with urbanism.

Using AHP and SEM, it identifies strategic priorities and validates impacts, deriving the concept of "Urban Public Art." Case studies of Paris, Copenhagen, New York, Singapore, Melbourne, and Seoul further confirm its effectiveness and inform strategies for Korea.

The study contributes by redefining public art within an urban framework, providing quantitative evidence of its impact, and demonstrating its feasibility as a planning-based urban strategy to enhance quality of life and cultural competi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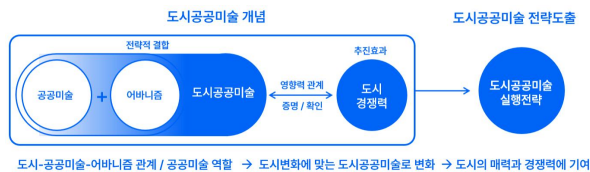
## (Keyword)

Public Art, Urban Public Art, City Competitiveness, Urbanism, Urban Public Art Strategy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한국 공공미술의 발전 과정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공공미술은 1980년대 기념비적 조형물에서 출발해 제도화와 함께 확산되었으나, 여전히 장식적 요소 중심에 머물러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도시계획과 분리된 실행 구조와 효과 검증의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연구는 공공미술을 ‘도시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어바니즘과의 결합을 통해 ‘도시공공미술’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도시공간 계획 초기부터 공공미술을 통합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시민 참여 확대, 문화 향유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이다. AHP와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한 분석 결과, 공공미술은 도시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도시 인식 변화, 일상 활력, 사회적 가치 형성 등 다층적 효과를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주요 도시 사례를 통해 공공미술이 도시 재생과 문화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을 도시계획 통합, 장소특화, 참여 거버넌스, 지속가능 운영체제로 구조함으로써 도시공공미술은 단순한 장식적 공공미술을 넘어 도시 경쟁력과 문화적 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정책의 중요한 실행 프레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림1] 연구의 기본방향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미술을 도시경쟁력 증진의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하기 위하여 시간적, 내용적, 사례조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첫째, 시간적 범위는 도시경쟁력 평가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도시 담론이 형성된 2000년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공공미술과 어바니즘 이론의 형성 시기가 1990년대 전후에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된 이론과 정책 흐름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 내용적 범위는 공공미술, 어바니즘(Urbanism), 도시경쟁력 지표를 통합적으로 다루되, 연구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범주는 제

외하였다. 공공미술의 범위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기념비적 조형물, 홍보 및 상징 조형물 등 비예술적·주문형 제작물은 제외하고, 예술가의 창작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형 공공미술에 한정하였다. 또한 어바니즘은 뉴어바니즘(New Urbanism)과 N분 도시이론(N-minute city theory)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현대 도시공간 구조 변화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도시경쟁력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9개 주요 지표 중 사회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역사적 유산(heritage)은 정책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요소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셋째, 사례분석 범위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써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불리는 도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대 이후 도시계획과 공공미술이 결합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도시 규모와 정책구조가 서울과 유사한 6개 도시, 10개 프로젝트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검증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적용하였다. 우선 질적 연구로서 문헌연구, 정책분석, 사례분석을 수행하고, 도출된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Python 기반 언어 빈도분석을 통해 주요 개념과 정책 담론의 경향성을 보완적으로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로써 AHP(계층분석법)를 활용하여 도시 공공미술 및 도시경쟁력 요소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SEM(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의 변수 간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통계산출을 위하여 SPSS 25.0과 AMOS 25.0을 활용하여 회귀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혼합연구 방법은 공공미술의 정성적 가치와 도시경쟁력이라는 정량적 지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증적 정책 제안을 가능하게 한다.

### 1.3 선행연구 고찰 및 용어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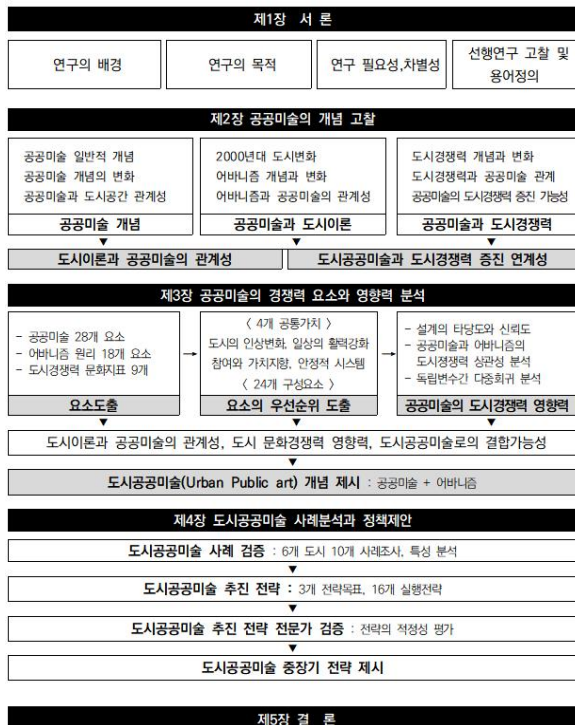
본 연구는 요소로써의 공공미술과 도시공간에서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공간론으로써의 어바니즘, 목표론으로써의 도시경쟁력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의 국내외 학술논문, 정책 보고서, 국제기구 자료(OECD, UN 등)를 포함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가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접점, 추진효과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미학적 비평보다는 공공미술과 도시의 관계성, 사회적 역할, 정책적 효과

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공공미술 분야의 선행연구는 공공성, 장소정체성, 시민 참여, 도시 이미지 개선 등 사회적 역할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에서 열린 특정성(open-specificity)등의 개념을 통해 도시경쟁력과 연계 가능성이 제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미술은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도시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확장된 예술로 이해되고 있었다.

어바니즘 분야에서는 뉴어바니즘(New Urbanism)과 N분 도시이론(N-minute city)이 핵심 이론으로, 보행 중심, 혼합용도, 생활권 기반 접근성을 강조하며 시민 개개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을 확인하였다. 형태와 기능중심의 도시설계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경험과 보행안에서의 일상 접근성을 강조하는 크로노 어바니즘(Chrono Urbanism)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시경쟁력 연구는 GDP, 수출역량 등 경제 지표적 평가에서 문화·창의성·삶의 질을 중요한 평가의 틀로 적용하며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의 문화적 경험은 도시정체성과 매력증진에 중요한 결정요소로 확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성들은 도시경쟁력이 물리적 개발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며 문화와 삶의 질에 대한 복합적 평가로써 국가단위에서 도시단위로, 장소에서 개개인의 만족도가 결정적인 중요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림2] 연구의 구성체계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을 도시가 추구하는 어바니즘의 전략적 결합된 도시디자인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볼 수 없는 관점으로 공공미술이 각 도시의 가치철학을 반영하고 공간계획 초기 단계부터 통합되는 전략적 정책으로써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실증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공공미술의 개념과 변화

#### 2.2.1 공공미술 개념

공공미술은 일반적으로 공공에게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거나 향유되는 예술로 정의되며, 공공을 위한(for public), 공공에게 공개된(open to the public), 공공과 함께하는(with the public) 예술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포함한다. 공공미술은 1967년 존 윌렛(John Willett)이 처음 개념화한 이래 공공의 공간(topos), 공공의 자본, 공중(公衆)과의 교감이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형식과 의미를 확장해왔다. 사회학적 합리성(rationality), 경제학적 공공재(public goods), 행정학적 공익성(public interest), 미술학적 소통의 흐름(flow of communication)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개념이다(김세훈, 2008). 공공미술이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공공정책에 의해 구현되며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미술(이슬기, 2018)인 만큼, 자유로운 접근(public access), 함께 즐김(public use), 공동의 소유(public ownership)가 가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삼철, 2000). 학문적으로는 행정력과 공공성이 강조된 Civic Art, 도시화 반향을 담은 Urban Art, 참여와 연대 중심의 Community Art, 융합적 성격의 City Art 등으로 분화되며 각각의 이론적 논의를 형성하고 있다.

#### 2.2.2 공공미술의 변화

1940년대 미국 뉴딜 공공미술 프로젝트(Federal Arts Project)에서 출발한 장식미술의 시대를 지나, 1960~70년대 사회참여예술의 흐름 속에서 공공성(Publicness) 개념이 미술과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1980~90년대에는 권미원(Miwon Kwon, 2002)이 제시한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이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면서, 공공미술은 단순한 공간 장식에서 특정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작품 안에 담아내는 맥락적 공공미술(Contextual Public Art)로 심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와 공동체(Community) 중심의 사회적 공공미술이 주류를 이루면서, 공공미술이 작가와 관람객의 일방향적 관계를 넘어 작가, 주민, 행정, 장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계형 예

술(Relational Art)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Bourriaud, 1998; Kwon, 2002). 도시 관점에서 공공미술의 의미는 미학자 임성훈(2009)이 제시한 장소(Place)와 소통(Communication)의 두 축으로 설명된다. 장소와 과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이 주장은 2000년대 이후 수용미학(receptive aesthetics)의 등장과 맥을 함께하며, 시민을 수동적 감상자에서 작품을 스스로 해석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향유자로 전환시켰다. 볼프강 아이저(Wolfgang Iser)와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Hans Robert Jauss)는 미술작품의 의미가 작품 자체보다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공공미술에서 경험성(Experience)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일상 공간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은 시민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고 공동체의 응집력을 강화함으로써(Carrasco-Barranco, 2024; Brennan, 2019)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견인한다. 예술기획자 존 빙엄 홀(John Bingham-Hall, 2015)은 공공미술이 도시공간에서 분리 불가능한 이미지(Image)로 작동하므로 도시형태학적(Urban Morphology)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공미술의 실행은 감상자와 공간, 작품이 만나는 지점을 출발점으로 하는 장소만들기(Place Making)로 귀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시공간에서 공공미술이 수행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1] 공공미술의 기능

| 세부 기능     | 내용                          |
|-----------|-----------------------------|
| 미적 경관 보완  | 도시경관 조성·보완, 시민 동의 기반의 미적 활동 |
| 실용적 기능    | 장소 매력성 제고, 문화예술 대중 접촉면 확대   |
| 랜드마크 기능   | 도시 점점 역할, 시각적 방향감과 공간 인상 제공 |
| 지역 활성화 기능 | 경제적 효과, 관광요소화, 지역민 활동 매개공간화 |

이러한 논의는 공공미술 정책이 순수미술의 확장적 개념이 아니라 도시공간에 설계된(designed) 예술표현(박재은 외, 2023)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며, 향후 공공미술은 갤러리로서의 도시공간을 넘어 도시공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안에서의 예술경험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샤론 주킨(Sharon Zukin)이 제기한 '누구를 위한 문화이고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라는 질문은 공공미술의 계층 포용성과 공간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하며, 2000년대 이후 시민의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향성과 일치한다(이영범·이철호, 2011).

## 2.2 공공미술과 어바니즘(Urbanism)

### 2.2.1 2000년대 시대적 가치 변화

2000년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채택 이후 2016년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Habitat III)는 도시권(Right to the City)과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공식 선언하며 효율,경제,성장에 집중

하였던 도시 패러다임을 도시민의 실천,정서,회복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김세훈, 2016). 이러한 변화는 도시 사회학,건축,도시 디자인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어바니즘(Urbanism)의 이론적 확장으로 이어졌다.

### 2.2.2 어바니즘의 개념과 변화

어바니즘(Urbanism)은 도시의 물리적 형태 계획에서 출발하여 도시 생활의 조직·문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연구하는 학제적 담론으로 확대된 개념이다(Michael, 2006). 어바니즘은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가 아닌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의미가 축적된 공간으로 간주하며(Mumford, 1961), 공공공간이 기능적 역할을 넘어 커뮤니티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장소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한다(Sennett, 1974). 2000년대 이후 어바니즘은 두 흐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1980년대 기능주의 도시계획에 대한 반향으로 등장하여 보행 가능성(walkability), 복합용도 개발, 인간 중심 커뮤니티 설계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Duany & Plater-Zyberk, 1991), 1996년 뉴어바니즘 선언(Charter of New Urbanism)과 형태기반코드(Form-Based Code)를 통해 도시 설계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N분 도시이론(N-Minute City Theory)은 코로나19 이후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의 15분 도시(15-Minute City) 개념에서 발전한 시간 중심 도시주의(Chrono-Urbanism)로, 일상 보행 생활권 내에서 사회문화적 서비스의 자급자족적 네트워크 구축을 주장한다. 파리의 15분 도시, 보고타의 바리오스 비탈레스(Barrios Vitales), 멜버른의 20분 이웃(20-Minute Neighborhood)이 대표적 사례이다.

[표 2] 2000년대 주요 어바니즘의 공통점과 차이점

|       | 공통점             | 뉴어바니즘             | N분 도시이론            |
|-------|-----------------|-------------------|--------------------|
| 방법론   | 인간 중심 도시디자인     | 형태원리 (Form-Based) | 시간성 (Chrono-Based) |
| 공간 철학 | 공간의 민주화·공공의 접근성 | 디자인 원칙에 집중        | 포용성·사회적 가치         |
| 공공성   |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    | 도시공간의 체계적 배치      | 도시공간의 활용성 강화       |

### 2.2.3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관계

21세기 어바니즘이 추구하는 사람·지역·일상 중심의 사고체계는 현대 공공미술의 발전 방향과 구조적 접점을 이룬다. 기념비적 조형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체 회복과 시민 참여를 지향하는 공공미술의 흐름은 수잔 레이시(Suzanne Lacy)의 뉴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을 통해 이론화되었으며,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의 관계의 미학(Relational Aesthetics)과 맥을 함께하며 공공미술의 지향점을 결

과적 유형성에서 과정적 관계성으로 전환시켰다.

두 영역의 구조적 공통성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형태적 기념비성 탈피와 일상 경험 중심화로, 거대 구조물 대신 일상 공간에서의 경험 확장을 공통으로 지향한다. 둘째, 공공자원의 민주적 활용으로, 시민 직접 참여와 도시공간의 민주화를 공통 속성으로 내포한다. 셋째, 보행을 통한 휴먼스케일(human scale) 문화교류 지원으로, 보행 연결성과 공공미술의 일상 접착이 맞물려 도시 활력을 강화한다. 넷째,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통한 도시 경험 확장으로, 단기 예술 개입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도시 공간에 새로운 경험을 설계한다.

[표 3] 2000년대 이후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공통 지향점

| 분류   | 어바니즘                | 공공미술              |
|------|---------------------|-------------------|
| 형식적  | 카를로스 모레노 : 15분 도시   | 니콜라 부리오 : 관계의 미학  |
| 유사성  | 시간 중심 도시공간 접근       | 일상 소통의 매개로서의 예술   |
| 방법론적 | 제프 스펙 : 걷기 쉬운 도시    | 수잔 레이시 : 뉴장르 공공미술 |
| 유사성  | (Walkable City)     | 참여적·프로세스 중심       |
| 가치철학 | 안 겔 : 인간 중심 도시계획    | 클레어 비숍 : 예술을 통한   |
| 유사성  | (Cities for People) | 사회적 상호작용과 민주적 소통  |
| 사회적  | 피터 칼소프 : 뉴어바니즘을     | 릭 로우 — 공공미술을 통한   |
| 효과의  | 통한 사회 통합성 강조        | 지역공동체 재생 실천       |
| 공통성  |                     |                   |

이러한 고찰을 통해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은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공동의 가치 지향성을 바탕으로 공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과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이론적 토대이자 공공미술의 체계적 도시 적용 전략 설계를 위한 핵심 근거로 기능한다.

## 2.3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

### 2.3.1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평가 패러다임 변화

도시경쟁력(City competitiveness)이란 입지, 기업 환경과 교통여건,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타 도시 대비 상대적 강점을 측정한 개념으로(변미리, 2013), 1980년대 이후 국가 단위 거시경제 중심의 평가에서 도시와 문화, 삶의 질 중심 평가로 진화해왔다(김갑성 외, 2009). 197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GDP, 인프라, 인적자원 중심 지표에서 출발하여, 1998년 Mercer사의 삶의 질(QoL) 지수 도입을 거쳐, 2008년 A.T. 커니 글로벌 도시지수(GCI)와 모리재단 글로벌 파워 시티 지수(GPCI)가 문화 경험과 문화교류를 핵심 평가 요소로 포함시켰다. 2010년대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거주환경지수(EIU)는 문화·환경을 5대 평가축의 하나로 공식화하였으며 2017년 EU 문화창의도시 지표(CCCI)는 문화적 활력, 창의경제를 도시 평가의 중심 축으로 공식화하였다. 2020년대에는

레조넌스(Resonance Consultancy)의 World's 100 Best Cities와 같이 SNS 실시간 평가, 야간 문화활동, 보행 접근성 등 향유자 관점의 직접 경험과 만족도가 핵심 척도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평가의 중심축이 국가→도시→문화→개인 삶의 질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향유자 만족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2.3.2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의 관계

2000년대 이후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의 창의도시이론(Creative City Theory) 확산으로 문화예술은 자산적 가치를 넘어 새로운 가치 발생의 요소로 재정의되었다. 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에 기여하는 경로는 세 가지로 구조화된다. 첫째, 삶의 질 제고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으로, 공공미술은 생활반경에 개입하여 쾌적성과 심미성을 제공하고 시민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촉매로 작용하며(Yue Cheng et al., 2023), 일상에서의 미적 경험을 통해 창의적 활력과 도시의 풍요를 견인한다(Ming Cheung et al., 2022). 둘째, 장소 정체성 형성과 창의경제 유발하며 공간 재생 또는 대형 예술 랜드마크 조성은 창조계급(Creative Class, Florida, 2002)을 유입시켜 새로운 도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한다(Hall & Robertson, 2001). 셋째, 창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 효과로, 공공미술은 예술, 디자인, 미디어 등 창의산업과 결합하여 장소 이미지 형성·지역 정체성 강화·매력 공간 조성으로 확장되며(McCarthy, 2006), 이는 공공미술의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과 유일무이성(uniqueness)이 촉발하는 고유한 경쟁력 요소이다.

[표 4]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 관계

| 학자                        | 주요 내용                                             |
|---------------------------|---------------------------------------------------|
| Hall & Robertson (2001)   | 공공미술은 지역 특성 표출을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제고  |
| McCarthy (2006)           | 창의산업과 결합한 공공미술이 장소 이미지·정체성 강화·매력 공간 조성으로 경제 효과 창출 |
| Montalto (2019)           | 유럽 168개 도시 실증분석에서 공공미술이 문화·창의적 활력 및 창의경제 지원 역할 확인 |
| Ming Cheung et al. (2022) | 공공미술 효과를 장소만들기·사회·경제·웰빙·혁신 등 8개 범주로 체계화           |
| 변미리 (2013)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적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              |

### 2.3.3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쟁력 효과

공공미술이 실질적인 도시의 경쟁력을 창출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Millennium Park)는 클라우드게이트(Cloud Gate) 등 대형 공공미술 작품 중심의 99,000㎡ 문화예술공원으로 연간 500만명의 방문객과 약 1조 4천억원의 관광효과를 창출

하며 도시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다(조경진, 2014). 포항 스페이스워크(Space Walk)는 민간투자 170억 원으로 완공된 333m 유선형 전망 조형작품으로 개장 23개월 만에 누적방문객 200만명을 돌파하고 야간 활동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라는 복합 효과를 거두었다. 필라델피아 벽화 프로젝트(Mural Arts Philadelphia)는 1984년 반(反)그래피티 운동에서 출발한 4,400점 이상의 세계 최장 벽화 프로젝트로, 연간 240만 달러의 경제효과와 1,350만명의 연간 방문객(2022)과 함께 범죄율 저감,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였다. 런던 4th Plinth는 2년마다 세계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시민 투표로 순환 전시하는 프로젝트로, 작품 비용 약 17억원으로 연간 1,50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런던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견인한 사례가 있다.

[표 5] 도시경쟁력 효과를 창출한 대표 공공미술 사례

| 사례                                                                                                     | 방식      | 도시경쟁력 효과                                   |
|--------------------------------------------------------------------------------------------------------|---------|--------------------------------------------|
| <br>밀레니엄 파크(시카고)      | 대형 랜드마크 | 연간 방문객 500만명<br>관광효과 약 1조 4천억원             |
| <br>스페이스워크 (포항)      | 체험형 조형  | 23개월 누적 200만명<br>한국관광의 별 선정                |
| <br>벽화 프로젝트(필라델피아)  | 참여 커뮤니티 | 연간 경제효과 240만 달러<br>연 방문객 1,350만명,<br>범죄율저감 |
| <br>4th Plinth (런던) | 순환 프로젝트 | 연간 방문객 1,500만명<br>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

### 3.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요인분석과 영향력 평가

3장은 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연구는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이론적 요소를 통합하고, 이를 도시경쟁력 지표와 연결하여 전략적 요소를 도출한 후, 정량적 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검증하는 단계적 구조를 따른다. 즉, 요소 도출-요소 체계화-우선순위 분석-영향력 검증이라는 분석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도시공공미술의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여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전략적 결합에 따른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의 개념을 도출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미술 방식을 제안한다.

#### 3.1 요소 도출

##### 3.1.1 공공미술 · 어바니즘 · 도시경쟁력

공공미술의 특성요소 도출을 위해 총 28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98개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



[그림 3] 요인분석과 영향력 평가 추진 체계

하고, 의미적 유사성과 가치지향성을 기준으로 2단계 분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공미술은 문화예술적 가치, 공간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네 가지의 가치영역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최종 28개의 핵심 특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예술성, 창의성, 상징성, 참여성,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 공공미술이 도시 내에서 수행하는 복합적 기능을 반영하며, 기존의 미학 중심 논의에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로 확장된 특징을 보인다.

[표 6] 공공미술 특성요소 도출

| 구분      | 특성 요소                   |
|---------|-------------------------|
| 문화예술 가치 | 예술성, 창의성, 상징성, 심미성, 시간성 |
| 공간적 가치  | 접근성, 이용성, 연속성, 장소특정성    |
| 사회적 가치  | 참여성, 공동체성, 포용성, 협치성     |
| 경제적 가치  | 경제성, 지속가능성, 보존성         |

앞선 고찰을 통해 현대 어바니즘의 특성을 반영하는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15분 도시(15-Minute City)의 시간주의(Chrono Urbanism) 이론 중 공공미술과의 연계성이 높은 공통 원칙을 추출한 결과, 보행성, 접근성, 혼합용도, 공공공간 활성화, 공동체 중심성 등의 8개의 특성요소가 있다 특히 15분 도시 이론은 시간 기반 접근성과 일상 생활권 중심의 공간구조를 강조하며, 공공미술이 시민의 일상경험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특성을 반영하였다.

[표 7] 어바니즘 특성요소 도출

| 구분   | 특성 요소            |
|------|------------------|
| 공간구조 | 보행 중심, 혼합용도, 고밀도 |
| 접근성  | 근접성, 시간 기반 접근    |
| 사회성  | 공동체 중심, 참여 확대    |
| 활용성  | 공공공간 활성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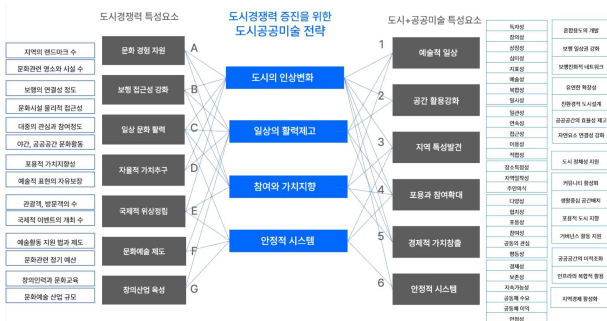
도시경쟁력 요소는 OECD, UN, MORI, MERCER 등 글로벌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문화 관련 지표를 추출하여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문화시설, 접근성, 참여, 표현의 자유, 문화체험, 거버넌스, 창의산업 등 총 16개의 특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도시경쟁력이 경제지표를 넘어 문화적 경험과 삶의 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표 8] 도시경쟁력 특성요소 도출

| 구분  | 특성요소             |
|-----|------------------|
| 문화  | 문화시설, 문화체험, 야간활동 |
| 접근성 | 보행성, 물리적 접근성     |
| 사회  | 참여, 표현의 자유       |
| 경제  | 창의산업, 문화경제       |
| 정책  | 거버넌스, 지원체계       |

### 3.1.2 특성요소 도출 및 체계화

도출된 공공미술, 어바니즘, 도시경쟁력 요소를 통합한 결과, 총 13개의 핵심 특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요소간 공통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요소를 체계화하였다. [그림4]



[그림 4] 특성요소의 종합을 통한 전략요소 체계화 과정

전략요소 도출을 위해 분석한 공공미술 요소, 어바니즘 요소, 도시경쟁력 요소들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도시의 인상변화, 일상의 활력제고, 참여와 가치지향, 시스템의 안정성의 4개의 전략요소를 도출하여 도시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에 기여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각 전략요소 하위에 총 24개의 세부 구성요소로 구체화하여 도시경쟁력에 기여하는 도시에서의 공공미술 요소들을 체계화 하였다. 전체 구성의 체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전략요소 구성체계

### 3.2 AHP 기반 전략요소 우선순위 분석

도출된 전략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AHP분석을 진행하였다. 계층화분석법(AHP-Analytic Hierarc hy Process)은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 구조로 분해하고,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미술·도시계획·문화정책 분야의 박

사급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관성 비율(Con sistency Ratio, CR) 0.1 이하의 응답만 유효 표본으로 처리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1계층 분석 결과, '일상의 활력제고(0.37)'가 최우선 전략 방향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시의 인상변화(0.28)', '참여와 가치지향(0.22)', '시스템의 안정성(0.13)'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종합 중요도 상위 10개 항목에서는 '경험성(0.098)', '안전성(0.082)', '현장성(0.074)', '주체성(0.069)', '활용성(0.065)'이 상위 5위를 차지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도시공공미술의 핵심을 일상적·체험적 접근 가능성과 시민 주체성에서 찾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공공미술이 상징적 랜드마크 조성보다 시민의 일상 경험과 공간 활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부요소 분석에서는 '활용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현장성', '경험성'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이며, 공공미술이 경험기반 도시활력 요소로 작동함을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전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존 공공미술이 강조해왔던 상징성과 미학적 가치보다, 활용성과 경험성,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요소가 더 높은 중요도를 보인 점은 향후 공공미술 정책의 핵심 쟁점의 반영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표 9]

|                          |                      |
|--------------------------|----------------------|
| 랜드마크 중심 → 생활권 기반<br>공공미술 | 작품 중심 → 시스템 중심       |
| 설치 중심 → 경험 중심            | 단기 프로젝트 → 지속가능<br>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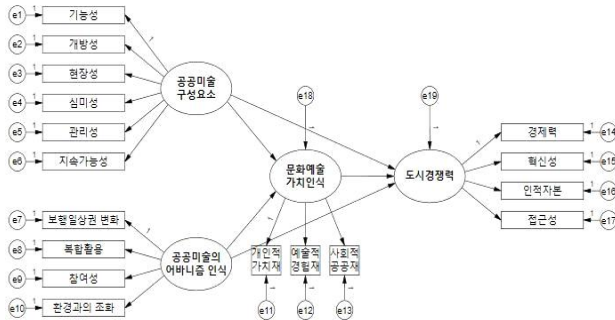
### 3.4 SEM을 통한 영향력 평가

#### 3.3.1 측정 변인과 측정도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 간의 구조적 관계와 영향 경로를 동시에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다. 본 연구는 AHP 분석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 공공미술·어바니즘결합 전략의 실제 작동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써 공공미술 구성요소(기능성·개방성·현장성·심미성·관리성·지속가능성의 26문항)와 공공미술의 어바니즘인식(보행일상권 변화·복합활용·참여성·환경과의 조화의 19문항)을, 매개변수로 문화예술 가치인식(개인적 가치재·예술적 경험재·사회적 공공재의 20문항)을, 종속변수로 도시경쟁력(경제력·혁신성·인적자본·접근성의 22문항)을 설정하였다. 설문은 인구비례할당에 기반하여 서울시민 3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25.3.10~20)

실시하였으며, SPSS 25.0과AMOS 25.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은 공공미술·어바니즘의도시경쟁력 직접효과, 문화예술 가치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총7개(세부20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통해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결합이 도시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여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한 다단계의 효과측정을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6] 구조방정식 모형

### 3.3.2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25.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모형 적합도 평가는 IFI(중분 적합도 지수), TLI(터커-루이스 지수), CFI(비교적합도 지수), RMSEA(근사평균제곱근 오차), RMR(잔차평균제곱근)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IFI \cdot TLI \cdot CFI \geq .90$ ,  $RMSEA \leq .08$ ,  $RMR < .05$ 로 설정하였다. 전체 측정모형의  $IFI=.954$ ,  $TLI=.942$ ,  $CFI=.954$ ,  $RMSEA=.080$ 으로 모두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모든 요인의 개념신뢰도(CR)  $\geq .60$ , 평균분산추출값(AVE)  $\geq .40$ 으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전체 변인의 Cronbach's  $\alpha$ 는 .672~.949로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10]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 적합도 지수 | $\chi^2(p)$             | RMR    | GFI        | RMSEA      | IFI        | TLI        | CFI        |
|--------|-------------------------|--------|------------|------------|------------|------------|------------|
| 측정 모형  | 320.520<br>( $p<.001$ ) | .019   | .887       | .080       | .954       | .942       | .954       |
| 권장 기준  | $p>.05$                 | $<.05$ | $\geq .90$ | $\leq .08$ | $\geq .90$ | $\geq .90$ | $\geq .90$ |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에 앞서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시경쟁력은 공공미술 구성요소( $r=.633$ ,  $p<.001$ ),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r=.666$ ,  $p<.001$ ), 문화예술 가치인식( $r=.671$ ,  $p<.001$ )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문화예술 가치인식과 어바니즘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수가  $r=.841(p<.001)$ 로 매우 높게 나타나, 두 변인이 도시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3.3 AHP, SEM 평가 결과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섯 가지 핵심 발견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미술 구성요소는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206$ ,  $p<.001$ ). 이 경로는 공공미술의 물리적·미적 구성—특히 기능성( $\beta=.249$ ,  $p<.001$ )과 개방성( $\beta=.193$ ,  $p<.01$ )—이 시민의 문화적 향유 경험으로 직접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이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다( $\beta=.879$ ,  $p<.001$ ). 이는 어바니즘 원리에 기반한 공공미술(보행일상권 변화·복합활용·환경과의 조화)이 시민의 문화적 가치 인식을 획기적으로 증폭시킴을 의미한다. 어바니즘 인식의 하위요인 중 환경과의 조화( $\beta=.323$ ,  $p<.001$ )와 보행일상권 변화( $\beta=.323$ ,  $p<.001$ )가 도시경쟁력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문화예술 가치인식은 도시경쟁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491$ ,  $p<.01$ ). 문화예술 가치인식의 하위요인 중 예술적 경험재( $\beta=.282$ ,  $p<.001$ ), 사회적 공공재( $\beta=.254$ ,  $p<.001$ ), 개인적 가치재( $\beta=.201$ ,  $p<.01$ )의 순으로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예술 체험의 공공재적·경험재적 가치가 도시경쟁력 지표와 가장 강하게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공공미술 구성요소는 도시경쟁력에도 직접적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208$ ,  $p<.05$ ). 이는 공공미술 자체가 도시경쟁력에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한 결과이다. 다섯째, 부트스트랩 매개효과 검증 결과, 공공미술 구성요소( $\beta=.101$ ,  $p<.05$ )와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beta=.431$ ,  $p<.01$ )이 문화예술 가치인식을 매개하여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95% CI 모두 0 포함 안 함).

[표 11] 주요 경로별 영향력 평가 결과

| 인과관계 경로                      | 표준화 계수( $\beta$ )     | 유의수준         |
|------------------------------|-----------------------|--------------|
| 공공미술 구성요소<br>→문화예술 가치인식      | $\beta = .206$        | *** $p<.001$ |
|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br>→문화예술 가치인식  | $\beta = .879$        | *** $p<.001$ |
| 공공미술 구성요소<br>→도시경쟁력(직접효과)    | $\beta = .208$        | * $p<.05$    |
| 문화예술→가치인식<br>→도시경쟁력          | $\beta = .491$        | ** $p<.01$   |
| 공공미술 전략→도시문화향유<br>→도시경쟁력(종합) | $\beta = .732 / .651$ | *** $p<.001$ |
| 공공미술 구성요소→가치인식<br>→도시경쟁력(매개) | $\beta = .101$        | * $p<.05$    |
| 어바니즘 인식→가치인식<br>→도시경쟁력(매개)   | $\beta = .431$        | ** $p<.01$   |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은 공공미술과 어바니

즘을 전략적으로 결합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이다. 어바니즘 요인이 단독으로는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미미하였으나( $\beta=.130$ ,  $p=.411$ , 기각), 공공미술 요소와 결합될 경우 연결 경로의 수가 평균 1.5배 이상 증가하고 도시경쟁력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강화됨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전략적 결합은 전체 연결 경로 58개, 연결강도 96.7점(100점 만점)으로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단독 경로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연결은 도시경쟁력을 증폭 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AHP 분석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한 경험성과 현장성이 SEM 분석의 시민 인식 데이터와 정합하는 결과로 가설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 3.4 도시공공미술 개념화

AHP와SEM 분석을 통해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결합이 도시경쟁력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규명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미술의 전략적 정책이자 새로운 개념으로서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을 제안한다.

#### 3.4.1 도시공공미술의 차별점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이란 대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공공미술의 한 유형으로,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지향성을 반영한 어바니즘원리를 기반으로 계획 초기 단계부터 도시공간에 통합적으로 개입한다. 도시디자인의 일환으로써 합목적적 행정 지원 프로세스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정책화된 공공미술이다. 이 개념의 학문적 독창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단순한 용어조합이 아니라 AHP·SEM 실증검증에 기반한 개념이며 공공미술을 작품이 아닌 도시 운영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전환하는 관점 변화를 담고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 시스템으로서의 시간성(Temporality) 개념과 다차원적 가치창출(Multi Dimensional Value Creation)을 위한 체계적, 계획적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첫째, 도시변화의 초기단계부터의 통합기획, 둘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의 중시, 셋째, 능동적 시민의 참여, 넷째, 행정지원 및 법제도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 지표달성과 체감효과 평가를 진행하는 5개의 핵심적 차별점을 제시한다. 이는 공공미술 정책이 건축물 미술 작품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도시계획·문화계획·경관계획과 통합되는 정책프레임을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선행연구와의 명확한 차별성을 가진다.

|        | 공공미술 (Public Art)                                                                          | 도시공공미술 (Urban Public Art)                                         |
|--------|--------------------------------------------------------------------------------------------|-------------------------------------------------------------------|
| 공통성    | · 예술가의 창작권 보전<br>· 공공미술의 고유한 특성인 장소특정성, 시민참여<br>· 공공미술을 통한 고유한 장소적 정체성 발견, 장소의 의미·경험 가치 증진 |                                                                   |
| 목적     | · 도시경관의 향상, 미적 장식<br>· 커뮤니티와 상징성 강조<br>· 작가의 창의적 표현을 통한 미적 수준 향상과 예술적 의미 강조                | · 도시경쟁력 향상, 삶의 질 제고,<br>· 문화수준 향상, 경제 활성화,<br>· 사회적 통합 등 종합적 가치평가 |
| 향유방식   | 예술작품의 감상                                                                                   | 예술의 향유와 경험                                                        |
| 작 가 군  | 순수미술 중심                                                                                    | 미술, 건축, 디자인, 조경, 퍼포먼스 등                                           |
| 주요가치   | 작가의 세계관에 따른 작품 중심                                                                          | 도시의 가치철학에 근거한 예술                                                  |
| 작품형태   | 순수미술 관련 장르로 구분                                                                             | 복합 설치, 사설, 공간, 미디어 등 복합                                           |
| 적용시점   | 공간조성 후, 도시재생 시설<br>도시계획 후반부 또는 완성 후 추가 설치                                                  | 도시 개발 시점, 공간조성 연계<br>도시계획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설계                           |
| 시 스템   | 프로젝트 발생 시 구성, 한시적                                                                          |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
| 프로세스   | Artist 중심의 프로세스                                                                            | Design 프로세스 도입                                                    |
| 행정지원체계 | 고정 조형물·벽화 위주 설치<br>(Static installation)                                                   | 유연한 프로젝트, 생애주기 적용<br>프로그램, 이벤트 통합 다원적 접근                          |
| 정책연계성  | 소극적                                                                                        | 적극적                                                               |
| 계획·결과  | 작가의 창작, 비평                                                                                 | 도시공간 변경계획, 효과평가                                                   |
| 적용정도   | 선택적                                                                                        | 필수적                                                               |
| 확장가능성  | 자율적인 확장 가능                                                                                 | 정책적 연결 규모 확장성 내재                                                  |

[그림 7] 정통 공공미술과 도시공공미술의 차별점

#### 3.4.2 도시공공미술의 구성요소

도시공공미술은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이론의 공통적 가치추구의 방향을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앞선 AHP 분석에서 도출된 우선요소와 SEM 실증 검증에 기반한 하여 전통적 공공미술의 원칙에서 발전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요소에 근거하여 4개의 도시공공미술 특성요소를 정리하였다. 첫째, 통합성(Integration)이다. 도시계획과 정비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도시공공미술이 공간점유 면적과 방식을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도시 전체와 조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원칙이다. 둘째, 다변적 접근성(Multiple Accessibility)이다. N분 도시이론의 보행 접근성(Walkability) 원칙을 공공미술에 적용한 개념으로, 일상 공간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24시간 열린 문화환경 개방과 심리적·물리적 안전감을 포함한다. GPCI 조사에서 서울의 야간 활동성(Night Life)과 안전성이 경쟁력 지표 상승의 핵심 요인이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콘텐츠 순환성(Circulation)으로 전통적 공공미술의 영구 설치(Permanent Installation) 한계를 극복하는 개념이다. 작품의 생애주기(Life Span)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의 한시적 전시물로서 공공미술을 도입함으로써, 콘텐츠의 주기적 갱신을 통한 도시 활력 유지와 실험·창의의 발현을 지지한다. 축제형 프로그램에서 한시적(1~5년) 설치까지 순환 주기의 다양화를 포함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시스템(Sustainability)이다. 공공미술의 정책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 요소이다. 전체 공공미술 정책 프로세스의 체계화, 주체와 자본 확대를 위한 협업 방식, 도시정비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포함하며, UN 창의도시 모니터(CCCM)의 핵심 평가요소이기도 하다.

[표 12] 도시공공미술 구성요소

|                                |                               |                                                         |
|--------------------------------|-------------------------------|---------------------------------------------------------|
| 도시<br>공공<br>미술<br><br>특성<br>요소 | 통합성<br>(Integration)          | 공간의 복합성, 이용의 다양성을 종합화하여 체계적인 연결, 계획하기 위한 개념             |
|                                | 다변적 접근성<br>(Accessibility)    | 시간과 공간의 접근 한계의 극복과 작품 경험을 위한 심리적, 물리적 안전감               |
|                                | 순환성<br>(Circulation)          | 한시적 점유와 작품 순환전시, 활성화 이벤트 등 장소와 시간점유의 한정을 통한 활력제고 방안     |
|                                | 지속가능한 시스템<br>(Sustainability) | 도시공공미술의 시스템화를 통한 타 영역, 타 주체와의 협력유지와 정책의 안정성 제고          |
| 공공<br>미술<br>기본<br>요소           | 장소 특정성<br>(Site Specific)     | 장소 고유의 의미를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장소의 정체성과 작품설치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요소     |
|                                | 작가의 창의성<br>(Creativity)       | 공공미술의 핵심요소로 주문된(ordered) 목적성과 관계없이 작가의 자율적인 창의와 상상력 표현  |
| 기본<br>가치<br>요소                 | 주체적 참여성<br>(participation)    | 도시민의 적극적인 도시권(Right to the City)의 행사를 통한 공공미술의 직접 개입 강화 |
|                                | 환경 친화성<br>(Eco friendliness)  | 국제적 의제(Global Agenda)의 지향과 지구를 위한 환경 친화 지향적 예술 추구       |

### 3.4.3 도시공공미술의 원칙

도시공공미술은 작품 중심의 미학적 접근에서 도시 운영 시스템의 구성요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공미술의 하나의 실행유형으로 도시공공미술을 체계적으로 간략한 개념개요를 정립하고 주요 목표, 정책개입의 시점, 참여방식, 공간활용 개념, 접근성과 가치중심성을 체계화 하여 도시공공미술 원칙으로 구체화 하여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실행정책의 기획과 추진 기준으로 작동하며 한국 공공미술 정책이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한계를 넘어 도시계획·문화계획·경관계획과 통합되는 문화적 정책 프레임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 도시공공미술 개요                    |                                  | 도시공공미술 원칙<br>(Principle of Urban Public Art) |
|------------------------------|----------------------------------|----------------------------------------------|
| 목 적<br>(Objectives)          |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br>장소 활성화         | 1. 도시계획과 예술기획의 통합적 프로세스                      |
| 적용 시점<br>(Application Stage) | 계획 초기부터 통합적 적용                   | 2. 한시적, 일상 밀착적 공공미술 추진                       |
| 참여방식<br>(Participation)      | 능동적 참여 / 시민의 협력 필수               | 3. 24시간 개방과 접근성, 활용성 반영                      |
| 공간 개념<br>(Spatial Concept)   | 도시 전체 대상<br>지역 맥락 통합 고려          | 4. 도시공간의 복합적 활용, 신중한 설치                      |
| 접근성<br>(Accessibility)       | 보행친화적 접근성<br>일상 속 예술 경험 제공       | 5. 장소기반의 콘텐츠 순환성 강화                          |
| 사회적 가치<br>(Social Value)     | 사회적 공공성 / 공동체 활성화<br>지역 정체성 형성   | 6. 협력, 협치 대상 확대 (주체, 자본)                     |
| 경제적 가치<br>(Economic Value)   | 경제 활력 증진 / 도시이미지 제고<br>문화적 부가 가치 | 7. 작가의 창의 발현을 위한 보호 체계 확립                    |
| 지속가능성<br>(Sustainability)    | 경제·사회·환경적<br>지속가능성 동시 추구         | 8. 시민의 주체적 참여 프로세스 적용                        |
|                              |                                  | 9. 지속가능한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
|                              |                                  | 10. 도시와 예술을 아우르는 전문 행정체계                     |

[그림 8] 도시공공미술의 개요와 원칙

## 4. 도시공공미술 전략 도출

3장의 통계적 조사분석에서 도출된 도시공공미술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국내외 도시의 사례분석과 정책 제안을 진행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2020년 전후 어바니즘이론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서울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6개 도시의 대표 공공미술 사례 10건을 8개의 도시공공미술 특성요소로 평가하고 분석한다. 둘째, 분석 결과와 한국의 제도적·정책적 현황을 종합하여 3대 핵심전략, 18개 세부과제를 단·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한다. 셋째, 전문가 6명, 실무자 5명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제안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종 실행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전략구조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작동 가능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을 논증한다.

### 4.1. 도시공공미술 실증분석

#### 4.1.1 조사 범위 및 대상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전후 N분 도시이론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11개 대도시(인구100만 이상)를 후보군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커니(Kearney) GCI(Global Cities Index)와 모리(Mori)의 GPCI(Global Power city Index)의 두 지표를 결합해 경제, R&D, 문화경험, 정보교류, 생활환경, 환경지속가능성 6개 기준으로 점수화하고, 공공미술 및 어바니즘과 관련성이 높은 문화, 생활환경, 환경 지표는 각 1.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서울을 기준으로 도시면적, 인구밀도, 행정시스템, 교통인프라의 복합지표 유사도 평가(Composite Indicator Method)를 병행하되, 2000년대 이후 어바니즘을 반영한 도시계획과 문화계획이 있으며 도시경쟁력 평가가 90점 이상인 도시를 대륙별 균형을 조정하는 2단계의 필터링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통해 파리(유사도 2.0), 코펜하겐(3.0), 뉴욕(1.4), 싱가포르(1.11), 멜버른(8.07)과 서울의 6개 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평가의 적정성을 높였다.

[표 13] 실증분석 대상 도시의 관련 계획 및 사례

| 대륙  | 도시          | 어바니즘 이론·관련 계획                       | 대표 공공미술 사례                             |
|-----|-------------|-------------------------------------|----------------------------------------|
| 유럽  | 프랑스<br>파리   | 15분 도시<br>(PLU Biodimatic 2023)     | Grand Paris Express<br>La Nuit Blanche |
|     | 덴마크<br>코펜하겐 | 5분 도시<br>(Municipal Plan 2023)      | Superkillen Park<br>Kunst i Byen       |
| 북미  | 미국<br>뉴욕    | 15분 도시<br>(OneNYC 2050)             | High Line Park<br>Rockefeller Center   |
|     | 싱가포르        | 10분 공원 접근<br>(Green Plan 2030)      | I Light Singapore<br>Our SG Arts Plan  |
| 아시아 | 한국<br>서울    | 30분 도시<br>(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 서울은 미술관<br>DDP 미디어 파사드                 |
|     | 오세<br>아니아   | 호주<br>멜버른<br>(Council Plan 2021-25) | 20분 동네 프로젝트<br>Creative Hoarding Trial |

#### 4.1.2. 사례분석의 결과

선정된 6개 도시에서 이루어진 공공미술 정책 중 2020년 이후 도시기본계획의 어바니즘이 기본 철학으로 반영된 10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3장에서 제시된 도시공공미술의 8개 구성요소인 장소특정성, 작가창의성, 통합성, 다변적접근성, 순환성, 지속가능 시스템, 주체적참여성, 환경친화성을 측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자의 정성적 평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요소와 평가자료에 기반하여 리커트5점 척도로 도시계획의 연계성, 공공미술의 특성 반영, 경제성, 사회적 가치지향성 등을 관점으로 계획과의 연계성과 자본, 운영 주체 구조 등을 함께 분석하여 도시경쟁력 효과와의 연결성을 도출하였다.

[표 14] 사례분석 결과 및 도시공공미술 특성

| 도시              | 관련 기본계획                                                                                                           | 도시공공미술 특성                                                                                                                  |
|-----------------|-------------------------------------------------------------------------------------------------------------------|----------------------------------------------------------------------------------------------------------------------------|
| <b>파리</b><br>   | <b>PLU Bioclimatique 2023</b><br>탄소중립, 기후와 생물 공간의 형평성과 문화유산의 다양성 보호<br>1인 녹지공간 확보<br>보행권 내 서비스 편의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 지향  | <b>Grand Paris, La Blanche</b><br>사회적 균형에 맞춘 예술적 장소만들기<br>열린 문화공간 체험 강화<br>자유와 포용, 환경친화적 예술                                |
| <b>코펜하겐</b><br> | <b>Copenhagen Municipal Plan 2023</b><br>2025년까지 탄소중립<br>녹색도시 달성<br>모든 연령의 혼합적 지속가능성 강조                           | <b>Superkillen Park</b><br>시민참여형 커뮤니티의 표용성<br>포괄적인 장소조성과 회복<br>초기부터 예술기획 적용<br>장소특정성 강화                                    |
| <b>뉴욕</b><br>   | <b>OneNYC 2050</b><br>강하고 공정한 도시 지향<br>형평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건강과 웰빙, 활기찬 민주주의 달성 목표, 현대 인프라 활용 강조                      | <b>High Line Park, Rockfeller C.</b><br>버려진 도시자원의 공원화<br>열린 현대미술의 장 제공<br>민간 주도 문화민주화 추구<br>모두 하-린 문화적 형평성 지향              |
| <b>멜버른</b><br>  | <b>Metropolitan Planning Strategy 2017-2050</b><br>디자인 특성이 기반된 살기 좋은 도시 지향<br>건강한 공동체, 공간적 형평성, 회복력이 있는 저탄소 도시 추구 | <b>20 Min Neighbor, Creative Hoarding</b><br>20분 생활권 내 예술 결합<br>집근처에서 활기찬 문화향유<br>문화자산을 통한 스토리 강조<br>거주성을 중심으로 독특한 예술방식 추구 |
| <b>싱가폴</b><br>  | <b>Singapore Green Plan 2030</b><br>도시의 녹색 강화, 폐기물 최소화<br>대중의 참여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 추구<br>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기술결합          | <b>I Light Singapore</b><br>기술과 재활용재료 작품설치<br>Green Plan 주제를 축제화<br>예술과 기술결합 미디어 축제로 도시 활력 증진<br>녹색 창의산업 육성 지원<br>다분야 기술결합 |
| <b>서울</b><br>   | <b>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b><br>30분 보행도시 지향<br>지역사회 중심 일상생활 질 향상, 6개 하천활용 디지털, 국제네트워크로 도시위상 강화,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              | <b>서울은 미술관, DDP 미디어파사드</b><br>장소만들기, 도시재생, 지역거점, 지역균형 장소선정<br>기술적 예술로 창의 아지 강화<br>최첨단 예술을 통한 국제교류 강화                       |

각 사례에서 고득점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도시공공 미술 적용방식의 적정성과 도시경쟁력 증진효과 간

의 관계를 고찰하여 사례로써 밝혀진 도시공공미술의 추진효과를 실증점점 하였다. 10개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유럽, 오세아니아 도시는 환경친화성, 주체적 참여, 가치지향성 지표에서 우세하며, 아시아 도시는 통합성, 순환성, 활용성 지표에서 강점을 보였다. 사업 재원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나, 민간 주도 공공성 창출 모델(록펠러센터)도 유효한 대안임이 확인되었다.

공통적으로 도시계획과 문화계획을 동시에 연계한 사업에서 도시경쟁력 효과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각 사례에서 나타난 도시경쟁력 발생 전략 6개를 추출하여 실행 전략수립에 적용하였다.

[표 15] 도시공공미술 사례분석 결과로 도출된 6개 핵심전략

| 도시공공미술 적용 방식                                                                                                                                                                                                                                                                                                                                    | 도시경쟁력 증진 효과                                                   | 높은 평가지표                                                                          |
|-------------------------------------------------------------------------------------------------------------------------------------------------------------------------------------------------------------------------------------------------------------------------------------------------------------------------------------------------|---------------------------------------------------------------|----------------------------------------------------------------------------------|
| <b>코펜하겐</b><br>                                                                                                                                                                                                                                                                                                                                 | 초기 기획단계부터 건축·조경·예술기획 삼각 협업/ 60개국 문화오 브제98점 참여형 설치             | 다문화 사회통합, 범 죄율 감소, 부동산 가치 상승, 도시브랜드 강화<br>장소특정성(5), 주체적참여성(5), 환경친화성(4)          |
| <b>파리</b><br>                                                                                                                                                                                                                                                                                                                                   | 15분 도시 비전 기반 68개 역사에 건축가+ 미술가:1 매칭문화 랜드마크화                    | 다핵 도시구조 전환, 약20만 일자리 창출, 역사권 부동산 상승, 국제 브랜딩<br>통합성(5), 지속가능시스템(4), 다변적접근성(4)     |
| <b>파리</b><br>                                                                                                                                                                                                                                                                                                                                   | 연1회 야간 전역 무료 공공예술 축제 (2002~) / 24시간 도시전략 실험                   | 야간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유도, 글로벌 문화허브 브랜딩<br>순환성(5), 주체적참여성(4), 다변적접근성(4)                  |
| <b>뉴욕</b><br>                                                                                                                                                                                                                                                                                                                                   | 폐철도1.6km 시민단체 주도 선형공원화/ Percent for Art-Public Art Fund 통합 운용 | 연500만 관광객, 헬 시지구 부동산 가치 상승, 민관협업 거버넌스 모델<br>순환성(5), 다변적접근성(5), 장소특정성(4)          |
| <b>뉴욕</b><br>                                                                                                                                                                                                                                                                                                                                   | URA 추치 지속가능 빛 예술 축제에너지 효율 소재-민간 크로 섹터 협업                      | 아시아 지속가능 예술허브 브랜딩, 문화 부동GDP 기여 증가 (1.42→1.7조SGD)<br>환경친화성(5), 통합성(4), 지속가능시스템(4) |
| <b>싱가폴</b><br>                                                                                                                                                                                                                                                                                                                                  | 조례-위원회-전담부서3 축 체계 비전통 공간 생애주기 예술/ DDP 미디어파사드                  | GPCI 순위 상승(7→6위), 야간경관 브랜딩,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수상<br>순환성(5), 다변적접근성(4), 장소특정성(4)        |
| <b>서울</b><br>                                                                                                                                                                                                                                                                                                                                   | 800m 보행반경 내 공 미술·문화시설 통합 배치공사가림막 예술 캔버스화                      | EUI 삶의 질 평가7년 연속1위, 창의도시 브랜딩,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br>주체적참여성(5), 장소특정성(4), 환경친화성(4)      |
| <b>멜버른</b><br>                                                                                                                                                                                                                                                                                                                                  |                                                               |                                                                                  |
| <b>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6개 전략</b>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도시계획·시설 변화 시점부터 예술기획을 내재화하여 통합 계획 수립</li> <li>② 일상 보행반경 내 예술경험 강화 및 도시 유휴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li> <li>③ 한시성·순환성·정기성의 시간 개념 적용작품 생애주기(Life Span) 명시</li> <li>④ 야간활동 지원 및 기술결합을 통한 비물질적 예술 확대와 도시브랜드 제고</li> <li>⑤ 지역 커뮤니티 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현장 활성화의 지속가능성 확보</li> <li>⑥ 체계적 추진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성과평가·환류 체계 마련</li> </ol> |                                                               |                                                                                  |

#### 4.2 도시공공미술 전략구성

##### 4.2.1 한국 공공미술 정책환경

한국의 공공미술 법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18조 제9호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및 전시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기금 용도 정도만 규정하는 수준에 그친다. 독립적 진흥법 부제, 건축물미술작품 대체 기금의 지자체 활용 불가, 단년도 예산 집행 원칙이라는 3중 제약으로 도시계획 연계 정책은 장기 프로세스로 추진이 불가피 하다. 또한 재정투자심사 기준에 예술작품 평가 기준이 부재하여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베슬 수준의 대형 문화 랜드마크 조성은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한 실행전략을 구성한다.

#### 4.2.2 도시공공미술 핵심전략 및 세부과제

사례분석 결과와 한국 공공미술 정책환경 분석 및 3장의 요소도출을 종합하여 4개의 핵심전략을 구성하였다. '참여와 가치지향'을 공통의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전제로 놓고 '일상의 활력제고', '도시의 인상변화', '안정적 기반조성'을 핵심전략으로 구성하여 도시경쟁력 효과를 연결한 단·중·장기 전략과 추진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표16]



[그림 9] 도시공공미술 핵심전략 다이어그램

[표 16] 도시공공미술 핵심전략 및 세부과제

|                          | 세부목표     | 추진방향             | 실행방식           | 경쟁력 요소                            |
|--------------------------|----------|------------------|----------------|-----------------------------------|
| A<br>일상<br>활력<br>강화      | 예술의 일상침투 | A1.경험 중심 기획 강화   | 체험, 기능, 자원성 강화 | 일상 문화 경험<br>열린 시간·공간 경험<br>보행 접근성 |
|                          | 생활문화 확산  | A2. 한시적 프로젝트 확대  | 일상 접근성 강화      |                                   |
|                          |          | A3.아간, 보행활동 강화   | 아간 도시전략        |                                   |
| B<br>도시<br>인상<br>제고      | 도시적 스케일  | B1. 예술기획 조기 반영   | 프로세스 개선        | 도시 브랜딩<br>장소 정체성<br>문화정책 시스템      |
|                          | 인상변화     | B2. 도시계획 연계 공공미술 | 국토계획 연계        |                                   |
|                          | 정체성 확립   | B3. 협력형 정책 설계    | 민관,기관협력        |                                   |
| C<br>안정<br>적<br>기반<br>조성 | 제도정비 시스템 | C1. 공공미술 위상 정립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공공미술의 제도<br>지속성 확보<br>민관 협치 확산    |
|                          | 안정화      | C2. 행정적 체계 마련    | PPP/기금법안       |                                   |
|                          | 거버넌스 활성화 | C3. 인력양성과 시스템화   | 행정체계 정비        |                                   |

#### 가) 단기전략 : 일상의 활력제고

단기전략의 핵심은 한시적이고 일상 밀착적 공공미술의 다변화이다. 공공미술 거점공간 조성

(Place Making)은 공개공지, 근린공원, 유흥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이 머무르고 만나는 소규모 예술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작품 생애주기 설정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한시적 공공미술 운영 사례를 준용, 설치기간 종료 후 소멸을 명문화하여 도시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Venue 중심 순환전시는 런던 트라팔가광장의 네 번째 좌대(4th Plinth)처럼 특정 장소에 콘텐츠를 정기 순환하는 방식으로, 고정 인프라에 변화하는 예술 콘텐츠를 결합하여 도시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 나) 중기전략 : 도시의 인상변화

도시계획 초기 예술기획 반영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핵심 프로세스 전환이다. [그림4-23]에 제시된 것처럼, 도시계획·경관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미술 검토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예술기획자(Art Director)를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장소의 상징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일반 공공미술 프로세스(사업계획→공모→심의)와 달리, 도시공공미술 프로세스는 마스터플랜→전문기획자 지정→부처협업→세부 전시기획→공모→시민공론화→심의의 확장된 절차를 통해 도시 스케일의 예술명소 조성을 견인한다. 민관협력 확대는 국가ESG 의무 공시(2025년~) 및 2023년 조세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매개 협업 근거를 활용하여 재원 구조를 다변화한다.

#### 다) 장기전략 : 안정적 기반조성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및 미술진흥법상의 용어 혼재를 해소하고, 도시계획과 연결된 미술작품의 체계화를 위한 '도시공공미술 진흥법' 단독 제정을 장기 목표로 설정한다. 선행 과제로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공공미술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계획' 항목 추가, 도시재생·신도시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 문체부와의 공공미술 협의 절차 의무화를 추진한다. 건축물미술작품 대납기금의 해당 지자체 활용 허용은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대안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업비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반이 된다.

[표 17] 도시공공미술의 단·중·장기과제 및 목표

| 단계·시기                  | 핵심과제                     | 주요 달성 목표                            |
|------------------------|--------------------------|-------------------------------------|
| 1단계<br>개념도입기<br>(0~5년) | 시범사업 착수<br>도시공공미술 유형 다변화 | 일상적 예술경험 확대 보행 문화<br>활성화 거버넌스 효과 창출 |
| 2단계<br>성장기<br>(5~8년)   | 추진체계 고도화 협력대상 확대         | 도시 브랜딩 강화 문화인프라<br>확대 민관협력 체계 안정화   |
| 3단계<br>안정기<br>(8~10년)  | 법제도 정비 시스템 안정화           | 문화역량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br>문화예술 시장 확대      |

### 4.3 결과검증(FGI) 및 전략도출

#### 4.3.1 조사개요

제안된 전략 전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6명(도시계획·건축·미술·디자인·도시사회학 전공, 50~60대)과 실무자 그룹5명(공공미술 기획, 실행, 연구 경험자)을 대상으로 2025년 4월27일 ~ 5월 2일 까지 현장토론·서면·유선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응답 텍스트는 Python 기반 키워드 빈도분석과 리커트 5점 척도로 정량화하였으며, 동의 수준 분석과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AHP)를 함께 적용하였다. 실무자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 18] 도시공공미술 전략관련 FGI 결과

| 평가 항목           | 전문가 | 실무자 | 주요 시사점                         |
|-----------------|-----|-----|--------------------------------|
| 도시공공미술 개념의 타당성  | 4.8 | 4.3 | 어바니즘 연계 공공미술 개념에 전문가 집단 강한 동의  |
| 정책 반영 필요성       | 4.7 | 4.5 | 양 집단 모두 정책화 필요성에 공감, 만장일치 수준   |
| 제안 전략의 실행 가능성   | 4.6 | 4.2 | 한국 행정 구조 내 단계적 실현 가능성 확인       |
| 제도화 타당성         | 4.4 | 3.8 | 실무자, 과도한 절차화 우려유연한 가이드라인 우선 요청 |
| 일상의 활력제고 전략 중요도 | 4.8 | 4.2 | 시민 체감형 단기성과 우선 필요성 강조          |
| 안정적 기반조성 전략 중요도 | 4.5 | 4.5 | 양 집단 공히 최우선 과제로 선정             |
| 도시의 인상변화 전략 중요도 | 4.0 | 3.5 | 상대적 중요도 낮음(전문가2.0, 실무자1.5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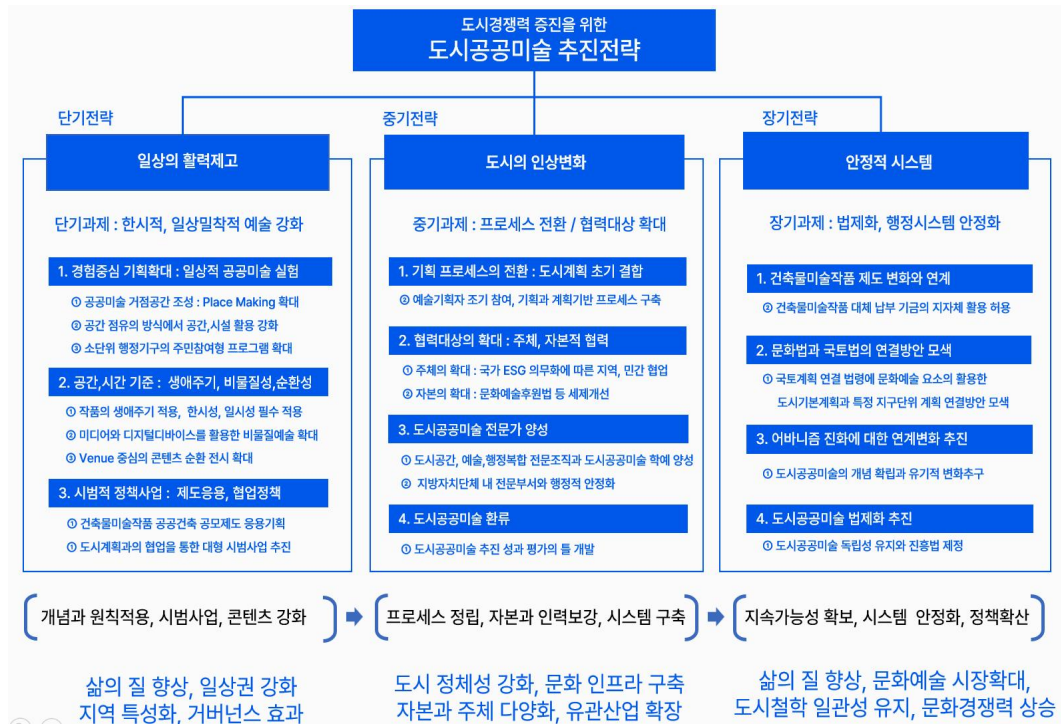
FGI 결과를 반영하여 초기 15개 과제에서 최종 18개 과제로 확대 재편하였다. 주요 변경사항 첫째, 건축물미

숯작품 공모제응용 기획을 장기에서 단기과제로 상향 조정, 둘째, 도시공공미술 기획 행정시스템 구성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중기과제로 명시함이다. 셋째, 도시공공미술 성과평가 틀 개발을 신설 과제로 추가하며 넷째, 도시공공미술 독립 진흥법을 장기과제로 확정을 요구하였다. 실무자 집단은 행정 담당자의 낮은 이해도와 단기 순환근무를 핵심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며, 실무 적합형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문 학예인력 양성을 최우선 요청과제로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체계를 구성하였다. FGI 결과를 반영하여 초기15개 과제에서 최종18개 과제로 확대·재편하였다. 실무자 집단은 행정 담당자의 낮은 이해도와 단기 순환근무를 핵심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며, 실무 적합형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문 학예인력 양성을 최우선 요청과제로 제안하였다.

#### 4.3.2. 최종 전략 및 실행 로드맵

전문가 검증을 거친 최종 실행전략은 총3개 핵심전략·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총10년의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정리된 도시공공미술 전략구조는 [그림 21]과 같다. 일상의 활력제고, 도시의 인상변화,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기, 중기, 장기 플랜으로 당장의 실행성, 장기적 함의를 요하는 사항, 주체와 자본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실행구조이다.

단기(3~5년)는 시범사업 착수 및 개념 정착, 중기(5~8년)는 추진체계 고도화 및 협력 확대, 장기(8~10년)는



[그림 10] 도시공공미술 추진전략 체계도

법제도 정비 및 시스템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5년 차에성과평가 및 도시공공미술 기본계획(Art Plan)을 수립하고, 10년차에 도시별 특화전략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완성한다. 단기과제는 중·장기과제 시작 후에도 지속 고도화·다변화되며 완료시점까지 병행한다.

결론으로 도출된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은 현재 한국의 법제 안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실천전략임이 확인되었고 현재 도시들에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하는 도시디자인 전략으로써의 활용가능성이 검증됨에 따라 향후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분명한 가치 지향성을 전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가능함을 논증하였다.

#### 4.4 도시공공미술 전략 적용 가능성

3장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도시공공미술이 개인과 공동의 경험제로 작동할 때 기존 공공미술 대비 1.5배 이상의 도시경쟁력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공공미술은 삶의 질 향상, 도시관광·브랜딩 효과, 거버넌스 강화, 글로벌 가치 추구, 문화인프라 확대의 5개 도시경쟁력 지표를 복합적으로 달성함이 사례 수준에서 입증되었다. 제안된 3대 핵심전략과 18개 세부과제는 각 지표의 달성 경로를 단계별로 구조화한 것으로, 도시공공미술이 단순 조형물 설치에서 도시정책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전환점을 제안한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 만장일치 수준의 동의(개념 타당성4.8점, 정책 반영 필요성 4.7점)는 본 전략의 학술적·정책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공공미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을 시작으로 어바니즘이론과 결합한 도시공공미술이라는 새로운 정책영역이 도시계획, 문화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설계되고 실행됨으로써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5 결 론

#### 5.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공공미술을 단순한 장식적 요소가 아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다. 기존 공공미술 연구는 미학적 가치나 작품 중심의 분석에 치중되어 도시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한 한계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공공미술이 도시공간에서 부차적 요소로 기능함에 근거하여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전략적 결합을 시도하고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의 제안과 실행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이론을 넘은 실증적 대안으로써 공공의 정책으로써의 공공

미술의 정책체계를 제안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통합성, 접근성, 순환성, 지속가능성의 특성요소를 도출하여 도시공공미술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도시경쟁력 지표와 연결함으로써 공공미술의 정책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미술 연구에 부족한 정량적 데이터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하여 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바니즘 요소와 결합될 경우 그 효과가 약 1.5배 증가함을 수치적으로 도출하였다. 보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랜드마크 중심 공공미술보다 시민의 일상 경험과 공간 활용을 강화하는 공공미술이 더 높은 효과를 보인 점을 발견한 것은 공공미술 정책 방향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6개국 10개 도시의 사례분석과 AHP 분석, 전문가 FGI 검증을 통해 도출된 실행전략과 체계에 근거하여 공공미술이 도시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공미술이 도시의 문화적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요소로 활용의 타당성을 학술적, 정책적 제언으로 구체화하였다.

#### 5.2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도시공공미술이 도시정책에 적용될 경우 세 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공미술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전환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공공미술을 도시 차원의 전략적 공공미술로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4,500여점의 공공미술 작품 중 약 92.5%가 건축물 미술작품이며, 정책사업 비중은 1%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공공미술을 도시정책으로 활용하도록 인식을 바꿔 도시 이미지 개선, 문화적 위상 강화,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공공미술과 도시계획의 통합의 요구다. 도시 노후화로 인한 광범위한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공미술을 계획 단계부터 도입할 경우 단편적 활성화를 넘어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문화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향후 도시공간 개발계획의 핵심 요소로 확장하도록 변환해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 산업의 확장 가능성이다. 도시공공미술은 건축, 디자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창작 기반 확장을 유도함으로써 건축물미술제도에 기형적으로 몰입하는 공공미술의 중심을 정부의 역할 하에 움직이는 새로운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시사한다.

### 5.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책환경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되었기에 타 국가나 도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례분석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 유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공미술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행정체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공공미술 적용 전략에 대한 추가 연구도 요구된다.

### 5.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미술을 도시경쟁력 향상의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도시계획과 결합한 도시공공미술 개념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공공미술은 그 도시가 지향하는 철학과 도시가 가진 매력을 발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어바니즘의 방향을 담아 각자에 맞게 진화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매력이 살아있는 예술도시로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도시공공미술의 명확한 개념화는 공공미술 사업이 예쁜 조형물을 골라 여기저기 장식하는 수단, 캐릭터 조형물 만들기, 다른 곳에서 흥행한 사례의 외관을 베껴 포토존을 만드는 환경개선의 도구화되는 것을 막고, 우수한 기획을 통해 도시의 시대철학을 반영한 미학의 결정체, 그 곳에 있어 의미있는 단 한 점으로써 가치를 공고히 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일상공간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전하는 매개체이자 한 도시의 경쟁력을 이끄는 성장동력으로써의 도시공공미술이 향후 한 도시의 쉼처어바니즘의 일환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공공미술은 숨어있는 도시의 맥락을 찾고 예술가와 도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보다 쉽게 시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구체화하며 도시 공간을 향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사회학적 담론을 만들어 왔다. 연구로 도출된 도시공공미술의 제안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들의 미래를 그리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동안 멈춰져 있던 공공미술 연구와 담론을 다시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정부에서 도시공공미술을 도입함으로써 도시 성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로 공공미술의 꾸준한 확장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수미(2024). 공공미술의 복합 논리. 미학예술학연구, 71, 50-77.
- 권미원(2002). 장소특정적미술. 현실문화.
- 김해보(2023). 지역문화 매력·활력 증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주연, 이미림, 권양숙(2010). 도시 공간에서의 인간과 공공미술의 유기적 관계 연구. 한국디자인학회지, 23(3).
- 노영순(2019). 문화권 선언2030 방향 설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희숙(2013). 공공공간의 환경조형물 설치에 관한 기본조사 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지, 48, 113-136.
- 박세훈(2008). 문화의 시대.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할. 국토, 320, 6-15.
- 박재은(2023). Project형 공공미술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8(7), 25-38.
- 박재은(2025).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미리(2013).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분석. 서울연구원.
- 변미리(2022).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서울연구원.
- 양현미(2013).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 문화정책논총, 27(1).
- 양현미(2017). 한국 공공미술의 역사와 현황. 문화예술연구, 14(2).
- 윤소영(2020). 지속가능한 문화비전2030 추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영진(2014).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 전략 연구. 한국조형학회지, 42(1), 1-14
- Bollen, K.A., & Long, J.S. (Ed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 Bourriaud, N. (1998). Relational Aesthetics. Les presses du réel.
-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2001). Charter of the New Urbanism. McGraw-Hill.
- Deutsche, R. (1996). Evictions: Art and Spatial Politics. MIT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23).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2023.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Finkelpearl, T. (2021). Dialogues in Public Art. MIT Press.
- Fornell, C., & Larcker, D.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Kwon, M.W. (2002). One Place After Another. MIT Press.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 Miles, M. (1997). Art, Space and the City. Routledge.
- Moreno, C. (2021). The 15-Minute City. MDPI Land, 10(12), 1368.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 Sennett, R. (1977). The Fall of Public Man. Knopf.
- UN Habitat (2021).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 2020-2021. UN Habitat.
- UNESCO (2019). Culture 2030 Indicators. UNESCO Publishing.